

광주에서 미래 디지털 융합기술을 만나다

'그린카·뿌리산업·로봇' 3개 전시회 DJ센터서 동시 개최 21일부터 3일간...13개국 280개 업체·53명 바이어 참여

광주에서 미래 디지털 산업을 선도할 자동차·뿌리산업·로봇을 테마로 하는 3개 전시회가 동시에 개최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가 주최하고 김대중컨벤션센터, KOTRA가 주관하는 2022 국제그린카 전시회, 국제뿌리산업전시회, 국제IoT가전로봇박람회가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국제그린카전시회는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제시하고, 국제IoT가전로봇박람회에는 '스마트 라이프' 산업을 선도하는 제품들, 그리고 국제뿌리산업전시회는 제조업에 근간이 되는 14대 뿌리기술의 정수를 선보인다. 이번 전시회에는 삼성전자, 쌍용자동차, 이엔플러스, DKSH, 오택캐리어 등 국내·외 280개 업체가 참가해 450여 개의 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며, 해외 13개국에서 53명의 바이어가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형태로 관람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각각의 라이프 스타일 및 콘셉트에 맞는 제품과 콘텐츠를 사용하여 테마 부스를 꾸려, 다양하고 특색 있는 최첨단 가전로봇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쌍용자동차는 3만 대 이상 예약을 자랑하는 신차 토레스를 공개, 참관객들의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엔플러스는 국내 최초의 전자제어 에어어스펜션 시스템(ECAS) 적용차량인 EV 카고 트럭을 전시하는 동시에 또 EV 1톤 축연장 시리즈도 최초로 선보인다. 공공군수사랑부는 항공 부품의 국산화를 촉진하고 국내 항공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항공무기체계 부

품 견본'을 선보일 예정이며, 목포해양대학교 선박수리지원센터는 오축 부품 및 3D 소재와 함께 부스 내에서 AR·VR 체험관을 통해 다양한 실감 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광주그린카진흥원, 한국금형산업진흥회 등 13개 기관들이 다양한 신기술과 사업 등을 공개한다.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상담회는 KOTRA, 브릿지 파트너스와 협업하여 전시 기간 내 해외 수출 상담회장을 구성, 유럽, 미국, 동남아 등 해외 유력 바이어들과 매칭 상담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자율주행 세미나, 광주 미래차·부품·장비 특화 단지 조성 포럼, 한국자동차기자협회 심포지엄, 뿌리 기술 고도화 기획 및 융접 분야 기술 세미나 등 다양한 부대행사 등도 예정돼 있다. 김상목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그린카·뿌리산업의 성과물은 물론 로봇 등 디지털 융합기술을 한 곳에서 조망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광주시의 주력사업인 자동차와 AI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볼 수 있는 만큼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50대도 코로나 4차 백신 접종 50대 연령층 코로나19 백신 4차 예방접종 첫날인 18일 광주 북구의 한 의료기관에서 복구청 50대 공직자가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도,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만기 도래 지급 2019년 가입 430명...적립금의 2배로 1인당 757만원

전남도가 18일부터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사업 가입자 430명에게 만기적립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이번 만기 혜택을 받는 청년은 지난 2019년 가입자다. 3년간 매월 10만원씩 성실히 적립한 금액 360만원에 더해 도 지원금 370만원과 이자 27만원 등 저축액의 두 배가 넘는 757만원을 지급받는다. 특히 이번 도 지원금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웠던 청년을 응원하기 위해 전남도청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1인 10만원)이 포함됐다.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사업은 청년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자립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남도와 청년이 공동 적립통장을 개설해 3년간 적립하면 만기 시 저축액의 두 배를 받을 수 있어 청년 자산 형성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지난 2017년 청년 행복시책으로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4541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1303명이 만기 혜택을 받아 취업 및 창업자금, 결혼자금, 학자금 대출 상환 등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13일 2022년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사업 대상자 713명을 신규로 선정, 2025년 7월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취약층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추가 가구별 평균 7만2150원 인상 전남도가 에너지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2년 에너지바우처' 정부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인상했다.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소외계층의 기본적인 냉·난방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하절기 전기요금과 동절기 연료비 일부를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지원 대상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으로 한정했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도 올 연말까지 지원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이에 기존 전남지역 3만6800여 가구 외에 추가로 1만5000여 가구가 에너지바우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금액도 기존보다 가구별 평균 7만2150원을 인상했다.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세대 13만7200원, 2인 세대 18만9500원, 3인 세대 25만8900원, 4인 이상 세대 34만7000원을 지원받는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화재·인명피해 되풀이에도...소방시설 불량 여전

전남소방, 2188개소 특별조사 시설 불량 456개소 정상화 37곳 과태료 44곳 시·군 이첩 전남소방본부가 올 상반기 2188개소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 456개소(21%)의 불량사항을 지적하고 조치명령 등으로 소방시설을 정상화했다.

이번 소방특별조사에는 소방본부 및 소방서 27개 반 59명의 소방특별조사 전담반이 투입됐다. 이들은 다중이용시설 513개소, 여수산업단지 113개소, 중점관리대상 110개소, 노후공장 91개소, 물류창고 및 선거 관련시설 등 기타 1361개소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실시 대상의 21%인 456개소에서 소방시설 및 피난, 방화시설의 불량사항이 나왔다. 주요 위반사항은 소방펌프 작동 불량 및 경보설

비, 피난설비 관리 소홀, 방화문 용도 장애, 불법 건축물 증축 사용 등이다. 대상별로는 물류창고 등 98개소, 중점관리대상 73개소, 선거관련시설 69건, 다중이용시설 51개소, 노후공장 48개소, 사찰 등 기타 117개소 등이다. 전남소방은 소방시설 불량 지적을 받은 375개소에 조치명령을 내리고 37개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44개소를 건축법 위반으로 관할 시·군에 이첩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제5기 광주 자치분권협의회 출범

제5기 광주 자치분권협의회는 18일 광주시청 소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자치분권 추진 현황과 계획 등을 공유했다. 자치분권협의회는 2014년 3월 출범했으며 제5기는 시의회, 학계, 언론계 관계자와 시민 활동가 19명으로 구성돼 2년간 자치

분권 정책 수립·시행, 교육 등을 주도하게 된다.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에 최성욱 전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부위원장에 이상현 변호사를 선출했다. 협의회 위원인 김대성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자치분권 2.0과 민선 8기 광주'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지방분권 개헌 등 과제를 짚어보고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속의 제도 활용 등의 거버넌스를 제안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3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8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본점(본부, 사업본부), 문흥지점, 양산지점, 운암지점
동림지점, 매곡지점, 천대지점, 통광지점, 각학지점

